



순환경제를 위한 침대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일시 '23.3.16.(목) 오후 13:30~15: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F 제9간담회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참가신청 클릭](#)

온오프라인 병행  YouTube [클리마투스 컬리지](#) [검색](#)

자료 집

| 주 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수 (환경노동위원회) •  기후변화센터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환경제를 위한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개최에 힘써주신 (재)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한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참석자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트리스는 우리의 휴식과 단잠을 돕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이제는 4차산업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매트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성인 1명이 누울 수 있는 커다란 매트리스가 순환이용 되고 있는지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튼튼한 매트리스가 수명을 다해 버려진 후 여전히 작업근로자의 손으로 칼 또는 낫과 같은 도구로 해체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스프링을 제외하고 나머지 폐합성수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감소된 매트리스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환경마크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트리스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한정된 작업환경에서 시간과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하는 일도 발생하며 미세먼지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공포된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의 일환으로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재활용 여건과 개선이 필요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집단지성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폐매트리스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합니다. 매트리스를 포함한 대형폐기물들이 재사용,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는 제조단계부터 폐기와 재활용단계까지 전 주기적으로 고려해 순환경제에 친화적인 제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민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이 미래에 혁신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순환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의적절한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체계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님,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환경부는 작년 말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순환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힘을 보태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자원순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활용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단순 소각, 매립되는 혼합소재 폐기물의 순환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은 주로 생활계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스프링은 재활용하고 합성수지는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합소재 폐기물입니다. 폐매트리스는 부피가 커 소각, 매립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트리스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고, 폐기물 수거·처리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폐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되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합소재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도 여러분이 주신 고견을 함께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순환경제를 위한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박대수 의원님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 발제 및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매트리스의 종류는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다변화되고, 이제는 기술 접목을 통한 수면 데이터 분석으로 우리 수면의 질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피가 큰 매트리스를 폐기할 때에는 스프링을 제외한 폐합성수지는 모두 소각 또는 매립처리 되고 있어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대형폐기물 데이터는 현재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매트리스가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에 용이하게 제조하고, 나아가 분리배출을 할 때도 정확한 집계를 통한다면 매트리스 처분을 위해 무리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함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억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대형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대수 의원님 및 귀한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재)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라는 선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및 회수 등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매트리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수면을 돕지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생산, 회수, 재활용 체계도 아직 미흡합니다.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대형폐기물 처리량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는 2011년 약 30만개에서 2016년 약 80만개로 2.7배가량 늘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은 TV(0.33)보다 높은 1.22개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은 제품별 통계 구분이 어려워 정확성과 신속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생애 매트리스 교체주기가 5년, 10년이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폐매트리스 발생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제도와 실행에서 걸림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들과 함께 협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모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대에 걸맞은 순환경제체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영숙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前 환경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제5대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개최하는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함을 위해 더욱 정교하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매트리스와 반대로 폐기 과정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도구로 일일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매트리스 시장 대비 자원순환 효율이 떨어진다면 태워지거나 쌓이는 쓰레기로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 전 지구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매트리스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오늘의 주제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해 물질 폐기를 줄여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ESG 관점에서는 현장에서 폐매트리스와 고균분투하는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공포했고 올해부터 생산, 소비, 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과 도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됐고,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개선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탄생’을 위해 외면받았던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회수, 선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에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탈동조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센터는 매트리스를 시작으로 소외된 폐자원을 발굴해 생산자 간의 협력과 지자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가 든든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그 초석을 마련하고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